

'스벅 가야지' 배재고 선수들 중징계에...한동훈 "과도한 처분" [지금이뉴스]

2026.07.02 오전 10:00



다음에서 보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혐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정지를 받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과도한 처분"이라며 배재고 학생들을 감쌌습니다.

1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교 야구경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대 팀에 대한 야유의 소재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출장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견해를 전했습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이라며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 최옥씨도 사과만 하고 계속 방송 중이고, 스텍도 영업 정지를 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재고 선수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거리로 삼은 행태는 저열하지만 이들 고등학생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무게는 비정상적으로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의원은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을 필두로 온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때리기에 나서더니 이제는 교육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나서서 배재고 선수들을 마녀사냥 한다"며 "심지어 민주당은 '배재고 야구부 폐지' 운운하는 헛소리도 서슴없이 내뱉는데, 말실수 하나 잡겠다고 평생 피땀 흘려온 아이들의 미래를 통째로 인질 삼겠다는 심보나. 징벌적 낙인으로는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스벅 가는 자유도 뺏더니, 아이들 꿈마저 빼앗나"라며 "(징계가) 과연 합당한가"라고 적었습니다.

나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정권 치하의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광주일고와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케 하는 조롱성 구호로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출전 금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는 2일 청룡기 대회 2회전부터 즉각 적용되고, 배재고의 성적은 물수패로 기록됩니다.

협회 공정위는 또 팀 징계와 별도로 지도자와 선수 징계는 심사숙고が必要하다고 판단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 내 공정위를 다시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 이윤희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척추관협착증, 다리저림" 원인밝혀져..치료 간단해?!

내가 쓴 병원비 돌려주는 "실비보험" 비교분석..문의몰래!

"허리통증, 다리저림" 1시간만에 증상 사라져..간단치료!



"척추관협착증, 다리저림" 원인밝혀져..치료 간단해?!

"허리통증, 다리저림" 1시간만에 증상 사라져..간단치료!

추천뉴스

코스피, 미국발 한파에 급락 출발...8,000 붐비

"2시간 마다 갠다면?" 멜라토닌 말고 '이것' 부족

"정통규처럼 되기 싫어서" 논란 선 그는 안정환...1인 시위 가능성도 언급 [지금이뉴스]

꽃가루 대국 일본에 비염이 없는 이유? 의외의 '옛 방식'

[V현장] '결혼의 완성' 남궁민 "축이 좋았다" ...소지섭과 흥행 대결(종합)

by

AD

AD

AD

많이 본 뉴스

1 [속보] 서울화생법원, 홍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2 홍영보 감독 미국 출국... "할 말은 많지만..."

3 오메가 열등 앞친 프랑스...31만원 에어컨 판매에 '이수리장'

4 "도로에 사람 쓰러졌다"...구조대상자, 출동 순찰차에 밟혀 사망

5 배재고 앞 '화환 전쟁'...학생 피해 우려에 '사복 허용' [앵커리포트]

HOT 연예 스포츠

"너무 마음에 들어"

공개..."독자 활동 이중계약"

있다"...소지섭과 흥행 대결(종합)

축구 철학이 중요 [앵커리포트]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합병 결국 무산.

어도어-다니엘 민희진, 330억대 손해

"딸 이름 팔아 투자 유도"...장윤정 친도

배재고 야구부, 재심 청구 '고심'...3학년

지금 이뉴스



한국인에 눈 뿜다니 "죄송하다"...파장 감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결국 [지금아뉴스]



"세계의 선박들, 석유가 흐르도록 하라"...개전 106일만에 전해진 종전합의



원화보다 가치 떨어진 통화는 사실상 없다...한국 경제의 소리 없는 경고 [지금아뉴스]



하늘도 무심하시지...인전 '훼손 시산' 실종자 DNA도 전원 불일치 [지금아뉴스]